



잘 커다오, 팡팡나무아

권영상 글 | 신철 그림
문학동네 | 초등 전학년

“세상에 아픔 없이 크는 나무가 어디 있겠니.”

속 깊은 아이와 생각 많은 아이의 동시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아동문학상
한국동시문학회 올해의 좋은 동시집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2-1 국어 가 교과서 수록

활동 1-1 바람에게 편지를 써요

「바람은 착하지」를 읽어 보세요.

바람은 어린 민들레꽃을 살며시 챙겨 주지요. 그때 민들레꽃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린 민들레꽃의 입장이 되어 바람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바람은 착하지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홀홀홀,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데굴데굴 길거리에 굴러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 준다.

그러고는
힘내렴!
딱 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바람에게

① 첫인사, 자기소개

② 하고 싶은 말

③ 끝인사

④ 날짜, 편지 쓴 사람

활동
1-2

고마운 이에게 편지를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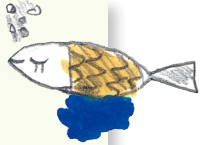
「바람은 착하지」의 바람과 어린 민들레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해요.

내가 힘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힘을 주었던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활동 1-1의 편지 쓰기 순서에 따라 편지를 써 보세요.

..... 에게





햇빛 좋은 날, 우리 집은

「햇빛 좋은 날」을 읽어 보세요.

우리 집 풍경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요.

집에서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가족은 무얼 하나요?

햇빛 좋은 날에 우리 집을 잘 관찰해 시를 써 보세요.

햇빛 좋은 날



엄마가 널어놓은
베란다 건조대 위의
쭈뼌한 빨래들.

아빠 와이셔츠 어깨에
내 러닝이 슬며시 기대어 있고
형 티셔츠에 내 한쪽 양말이
마치 형 배 위에 올려놓고 자는
내 무엄한 발처럼 그곳이 얹혀있다.
엄마 반바지에 내가 묻혀 놓았던
파란 잉크펜 자국.

건조대 위에서
보송보송 마르는 쭈뼌한 빨래들.
빨래 마르는 것만 봐도 안다.
햇빛 좋은 날의
우리 집.



『잘 커다오, 팡팡나무야』에는 맑고 편안한 그림들이 담겨 있어요.

신철 화가가 시의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정성껏 그린 것이지요.

여러분도 화가가 되어 『봄 하늘』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봄 하늘

이슬비가 온다.

머리카락에 내려앉아도

도무지 무게를 모를 이슬비가.

하늘은

이렇게 가벼운 이슬비도

모두 내려놓는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보니

비 내리던 하늘이

그림 속 물감처럼 파래졌다.

저렇게 하늘이 파래지려고

봄 하늘은

이슬비마저 춤춤춤 내려놓았다.

